

노희경 “촛불집회에서 지구대 경찰 이야기 구상”

솔리드 “21년만에 완전체 컴백”

“지구대 경찰들에 대해 이야기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촛불집회였습니다.”

오는 10일 tvN에서 처음 방송하는 주말극 ‘라이브’의 대본을 쓴 노희경(52·사진) 작가는 이같이 밝혔다.

노 작가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촛불집회에 갔을 때 서 있는 경찰들 눈을 보니 시위대를 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같이 참여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고 입을 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부터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디어 마이 프렌즈’까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글을 써온 노 작가는 이번에 지구대 경찰들을 조명한다.

지금까지 나온 경찰 드라마들은 주로 사건 위주였지만, ‘라이브’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원과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주변 경찰들의 모습이 포커스를 맞춘다.

“촛불집회가 있기 전까지 경찰은 세계 그냥 ‘기본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편견이었지만, 그걸 굳이 깰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정말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군 버리를 이병과 일병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죠. 이들은 공권력이 아니라 희생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노 작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르극들은 대부분 사건을 풀어가는 한 명의 영웅 이야기에 집중되는 것 같다”며 “그런 통쾌한 복수극, 영웅담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

tvN 주말극 ‘라이브’ 10일 첫 방

이광수·정유미·배종옥 등 출연

한명의 영웅 아닌 친근한 경찰 그려

실 수도 있다. 저는 풀뿌리 같은 다수 국민의 최전방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현장감 있게 다루고 싶다”고 설명했다.

노 작가는 주연으로 나선 정유미와 이광수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그는 “유미 씨는 처음에 (캐스팅) 거론이 됐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 보니 훨씬 소탈하고 생생한 캐릭터였다”며 “게다가 정오 캐릭터가 국내 여배우들이 많이 꺼릴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유미 씨가 잘 이해해주시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수 씨는 늘 탐구하고 물어거며 연기하는 배우”라며 “그 확신이 있어서 주연을 맡기면서도 의심하지 않았고, 반 정도 촬영했는데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작가는 마지막으로 “촛불집회부터 ‘미투(MeToo, 나도 당했다)혁명’에 이르기까지 최근 몰라도 될 것 같은 것들을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데, 알려주는 이상 들여다 보고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시대의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사회적인 메시지를 강조했다.

노 작가의 주요 작품에서 노 작가와 오랜 호흡을 맞춘 김규태 PD도 이번에 역시 함께한다.

김 PD는 “매번 작품에 대한 평가와 시청률이란 수치는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이번 작품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당돌한 여순경 한정을 연기하는 배우 정유미(35)는 “예능은 예능대로,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집중하면 둘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주로 로맨스 장르를 해왔던 정유미는 이번 작품을 선택한 데 대해서도 남다른 욕심을 드러냈다.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배우는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소재 드라마) 같은 것에 많이 기댄 편인데, ‘라이브’의 시놉시스를 듣고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희경 작가님의 이야기를, 그 감정들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먹고 살기 급한 순경 염상수를 연기할 배우 이광수(33)는 ‘런닝맨’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이미지가 배우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느냐는 물음에 “주변에서 오히려 그런 우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웃었다.

“연기를 시작한 지 8년이 넘었는데 (웃음) 제가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능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 시청자들도 또 몰입해서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유미와 이광수 외에 배종옥, 배종옥, 성동일, 장현성, 신동욱, 이시연 등도 출연한다.

10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SOLID



3월중 신곡 발표…5월 공연 계획 중

‘이 밤의 끝을 잡고’로 유명한 1990년대 3인조 R&B 그룹 솔리드(정재운 46, 이준 46, 김조한 45)가 해체 21년 만에 재결합한다.

6일 가요계에 따르면 국내 ‘R&B 원조’로 불리는 솔리드의 세 멤버가 다시 뭉쳐 이달 말 앨범을 발표하며 5월 공연을 계획 중이다. 올해는 솔리드의 데뷔 25주년이란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지난해 다시 뭉치는 데 뜻을 모은 뒤 공연기획사와 음반유통사를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한 앨범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방송 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3년 1월 데뷔한 솔리드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팀이었다. 발라드와 댄스가 주를 잡던 시절 대표곡 ‘이 밤의 끝을 잡고’, ‘천생연분’, ‘끝이 아니기를’ 등에서 선보인 R&B 창법과 저음의 랩·꺽직한 음색의 내레이션은 새로웠다.

세 멤버 모두 재미 교포 출신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정재운과 그가 미국에서 처음 만난 친구인 이준, 고2 때부터 알았던 김조한은 함께 음악을 만들어 데모곡을 한국에 보냈고 1집을 낼 기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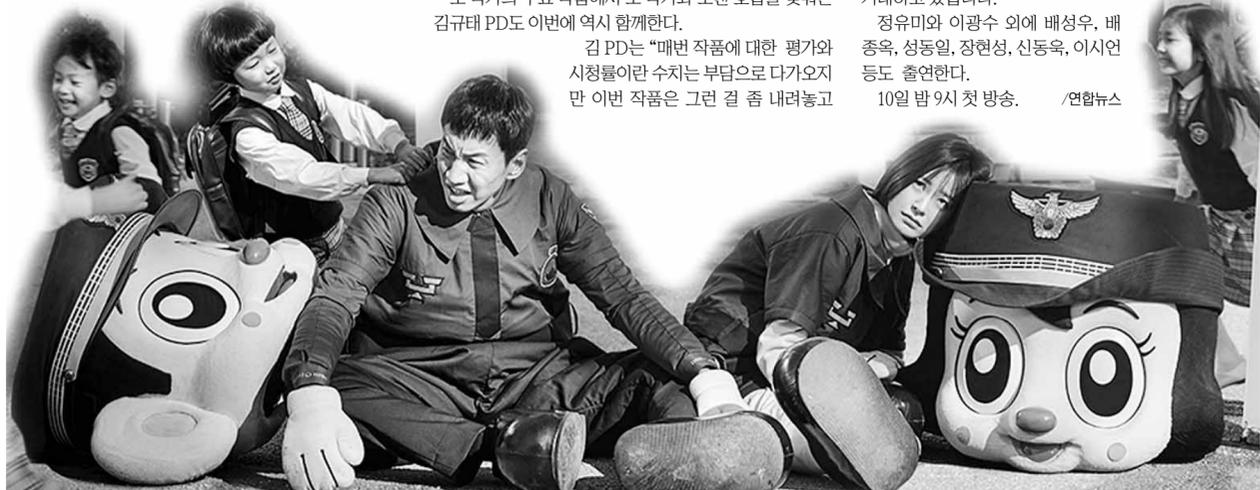
1집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1995년 2집에서는 팝의 색깔을 건어내고 한국 정서에 맞추면서 ‘이 밤의 끝을 잡고’와 ‘나만의 친구’가 대중적으로 히트했다. 1996년 3집의 ‘나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여!’와 ‘천생연분’이 큰 사랑을 받았고 특히 ‘천생연분’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힌다.

승승장구하던 이들은 각자의 꿈을 위해 1997년 4집 ‘솔리데이트’(Solidate)를 끝으로 팀을 해체했다.

이후 김조한은 꾸준히 솔로로 음반을 내 ‘R&B 대디’란 수식어를 얻으며 현역에서 활동했다.

정재운은 1998년부터 미국과 대만을 오가며 프로듀서로 활동했고 국내에 정착한 뒤에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그룹 어지타임을 키우고 밴드 로열 파이럿츠의 프로듀싱을 맡았다.

이준은 1997년 솔리드가 해체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원을 마쳤으며 2004년 결혼하고서 주매출 리모델링하는 부동산 사업을 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3.1절 특집다큐 2부작 (이방인의 3.1운동)(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재) 40 추리의 여왕 시즌2(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00 12 MBC 뉴스 2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데마스페셜
1	20 특집다큐 올림픽 개막식 만들기(재)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 라디오스타 스페셜	55 닥터 365
2	10 공사장립특집 내 아이를 부탁해 2부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5 지오메카	00 뉴스브리핑
3	0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0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하하랜드 2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톤에이지 15 영동발달공공사업과 친구들 4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애 웬수들 (재)	00 SBS 온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닥터 365 05 고경준문목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피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시사토론 10			
10	35 스포터 4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11	1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00 싱글라이프 1~2부
12	05 인간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디큐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3부 무인대 사람들)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3부 무인대 사람들)
06:00 한국기행(재)	10:3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원장 수목과 김치 조림)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00 EBS 정오 뉴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10 EBS 초대석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13:00 지식채널e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45 오솔강아지 크레핑	13:40 미래강연 Q(재)
09:00 똑딱맨	14:30 너티너츠
09:15 엄마 까투리	15:00 호기심 소녀 도트호
	15:15 파파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무이	20:40 세계테마기행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인도차이나 반도 미식기행 3부 맛있는 메콩강 라오스>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21:30 한국기행
16:30 요술강아지 크레핑(재)	<소확행 하신가요? 3부 혼해 빠진, 특별한>
16:45 뽀롱뽀롱 유치원1~2(재)	21:50 EBS 다크프라임
17:15 엄마 까투리(재)	<4차 인간 3부 어떻게 기계와 공존할 것인가?>
17:30 두다다쿵	22:45 극한직업
17:45 뽀롱뽀롱 뽀로로	<외출전생, 갯방풍과 송담 외>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23:55 미래강연 Q
19:00 몬카트(재)	24:45 지식채널e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50 세계의 눈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음 1월 20일 戊戌)
子	48년생 인재를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60년생 부딪음을 제어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라. 72년생 참신한 발상만이 진부함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84년생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이오라. 행운의 숫자 : 09, 92	42년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54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남매를 보리라. 66년생 행하다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78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90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7, 38
丑	49년생 손조로움을 이끄는 선행 조짐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61년생 반복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73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85년생 있는 그대로가 가장 나은 형태이리라. 행운의 숫자 : 17, 23	43년생 즐겨워하는 형상이다. 55년생 비추었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해하는 것도 좋다. 67년생 과감히 버려라. 79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91년생 사심이 개인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8, 27
寅	50년생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 62년생 망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었다. 74년생 김경이 낚일 수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86년생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05, 52	44년생 오르막길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내리막길에 이르는 법이다. 56년생 눈 거북이가 우연히 뜬 나무를 만나는 격이다. 68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80년생 절대로 신규는 도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5, 75
卯	51년생 기존의 패턴을 완전히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여 갈 수 있다. 63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75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리라. 87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3, 14	45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57년생 제3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69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81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93, 11
辰	52년생 이리저도 저러지도 못 하여 참으로 애매해졌다. 64년생 분명해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대로 성과는 거두게 된다. 88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78	46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58년생 답답하겠지만 점차로 있는 것이 상책이다. 70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긴요한 문제이다. 82년생 즐겨져 있는 것이 모자라리라. 행운의 숫자 : 63, 80
巳	53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65년생 전진하고 끝내 목적을 달성하고 매우 기뻐하는 조후이리라. 77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89년생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96	47년생 부드러운 감성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59년생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71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가 더 낫다. 83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행운의 숫자 : 64, 7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